



보도시점 2024. 7. 30.(화) 15:00 배포 2024. 7. 30.(화)

“파리 올림픽 참가 선수단 및 해외여행객 안전확보에 최선”

- 한덕수 국무총리,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-

- ◆ '24년 하반기 대테러활동: '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'을 위해 10개 중점과제 선정
- ◆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·안전활동 추진
- ◆ 대테러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軍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
- ◆ 중동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 지원체계 점검
- ◆ 경찰청의 대테러 역량 제고를 위한 테러사건대책본부 운영 훈련 추진

□ 정부는 7월 30일(화)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9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*를 개최했다.

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위원장(국무총리) 및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으로 구성

○ 오늘 회의에서는 「'24년 하반기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」을 반영한 「'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,

- 지난 26일 개막하여 우리 선수단 260명이 참가하는 「파리올림픽 대테러·안전활동 추진」과 함께 「軍 대테러특수임무대 대체지정」, 「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」, 「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」 등을 논의하였다.

□ 한 총리는 “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테러 위협에 맞서 국민 안전을 지켜왔다”면서 하반기에도 “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, 국가와 공공의 안전 확보”를 위해 “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에 역량을 결집할 것”을 당부했다.

○ 특히, “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각종 테러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”며 “올림픽 참가 선수단과 해외여행객들의 안전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
□ 오늘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 2024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< '24년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 >

- 정부는 법령 발전 등 대테러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제적 테러 예방 활동과 테러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'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'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1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.
- ① 파리올림픽 등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강화
- ② 대테러 기본계획 및 교육훈련지침 제·개정 추진
- ③ 국가중요시설 드론테러 대비체계 구축 촉진
- ④ 국가대테러 종합훈련 및 대책본부·현장전담조직 통합훈련
- ⑤ 국제기구 및 해외 대테러기관과 협력 확대
- ⑥ 재외국민 보호 및 취약해역 운항선박 안전지원 강화
- ⑦ 홍보매체·콘텐츠 다변화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
- ⑧ 테러위험인물 및 테러자금 정보 입수·차단
- ⑨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및 합동점검 추진
- ⑩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대책 발전

2 파리올림픽 대테러·안전활동 추진 (보고)

- 파리 올림픽을 겨냥한 이슬람 테러조직들의 선전·선동 강화 여파속에 프랑스 내 테러모의가 다수 적발되는 등 테러위협이 현실화된 가운데,
 - 외교부·문체부 등 기관별 전담조직*을 편성·운영하는 등 우리 선수단과 국민 보호를 위한 파리올림픽 대테러·안전활동 방안을 논의했다.

* 외교부(대테러현장대응팀 및 임시영사사무소), 문체부(현지 종합상황실 및 국내 상황반) 등

3 중동해역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 (보고)

- 예멘 후티반군이 홍해·아덴만을 지나는 민간선박을 위협·공격하는 등 중동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,
 - 해적위험지수 정보제공, 행동요령 전파, 운항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우리선박 안전운항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.

4 제1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 추진계획 (보고)

- 국내일반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의 테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테러 특공대 출동 등 초동대응부터
 - 경찰청장·지방경찰청장 등 지휘부의 테러사건대책본부 구성·운영 등 테러대응 전 단계에 걸친 종합훈련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부 장	이한형 (02-2100-2032)
	대테러센터	담당자	사무관	전지원 (02-2100-2034)